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SUGGESTED READING

가제 : 권장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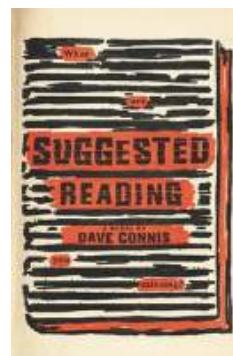
저자 : Dave Connis

출판사: Katherine Tegen Books

발행일: 2019년 9월 17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프랑스, 스페인 판매 완료

* “저항은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고, 올바른 책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믿음을 보이는 책” -스콜라 이브러리 저널

* “책을 사랑하는 것만큼 간단한 일도 없다는 멋진 사실을 상기시키는 이야기”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Mosquitoland』의 작가 데이빗 아놀드

* “독서를 저항의 한 수단으로 활용한 독창적이고 재미 있는 탐구” - 『After the Shot Drops』의 저자 랜디 리베이

명문 사립학교 럽튼 아카데미 졸업반인 클라라 에반스에게 독서는 그저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넘어서는 특별한 것이다. 책은 클라라의 삶을 이야기하는 가장 선명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금서 목록’에 따라 학교 도서관에서 50권의 책을 조용히 없애도록 지시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분노와 함께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고 느낀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책을 사랑하고 오직 책만이 선사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누구보다 굳게 믿는 클라라는 교장의 금서 목록에 그 믿음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 책들이 여러 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더욱 격분한다. 견해에 따라 금지할 수도 있다고 최소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아니라, 편협한 사고와 차별을 잣대로 삼아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을 금지시키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느낀 클라라는 교장이 금지한 책들을 모두 구비해서 사물함에 채워 두고 학생들에게 빌려주는 비밀 도서관을 운영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좋은 친구들, 사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시간이 갈수록 비밀 도서관 ‘언리브’가 큰 인기를 얻자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에 다소 우쭐해진 클라라는 충격적인 사건과 직면한다. 대학에 진행하려면 꼭 필요한 장학금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과 더불어 어쩌면 책이 누군가에게는 힘과 희망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은 클라라는 비밀 도서관을 시작하게 만든 확고한 생각이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럼튼 아카데미에 입학한 이후로 클라라는 늘 컴맹인 사서 선생님을 대신해서 망가진 컴퓨터를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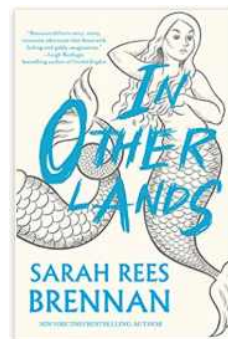
치고, 도서관 곳곳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깔고, 보다 편리하게 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신경 써왔다. 문제의 이메일도 선생님의 컴퓨터를 손보던 중 우연히 눈에 띄었다. 학교장이 보낸 그 메일에는 최근 관계자 회의가 비공개로 개최되었으며, 학교 운영상 몇 가지 사항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과 함께 ‘명문 사립학교로서의 오랜 전통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금서 목록을 정했다’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클라라를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50권의 책 제목과 금지 사유였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부적절한 언어가 사용됐다는 이유로, <화씨 451>은 불경스러우며 알코올, 마약이 언급되어서, <나니아 연대기>는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고 억압 당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금지한다는 것을 보고, 클라라는 눈을 의심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며,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절대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책을 도서관 책장에서 없애버린 후 책 검색을 하면 목록에는 나오게끔 교묘하게 조작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클라라는 큰 충격에 휩싸인다. 책을 아예 없애 놓고 다른 사람이 빌려갔다고 생각하게 만들다니, 교장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월권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문학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장 단순하고도 중요한 원리를 짓밟은 교장의 처사에 분노한 클라라는 혼자서라도 빼앗긴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 비밀 도서관을 시작한다. 절친한 친구 리퀴, 사서 선생님과 더불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내민 덕분에 클라라의 도서관은 점점 더 많이 알려지고, 학생들은 오히려 금지된 책의 내용과 그 속에 담긴 의미, 영향에 대해 더 건전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한다. 클라라는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졸업할 때까지 말 한 번 섞을 일이 없었을 아이들까지 책이라는 매개체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깨닫는다. 책도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다. 그런데 클라라가 권한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고 돌려주려 다시 찾아온 책은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 클라라를 당황하게 한다. 왜 주인공은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지, 아이 같은 순수함을 그냥 간직하고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흐느끼던 책은 그리 가까운 사이도 아닌 클라라에게 자신이 게이이며 그 이유 때문에 보수적인 남부 출신인 부모님에게 2년째 엄청난 압박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 놓는다. 같은 책을 사람에 따라 너무나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낀 클라라는 진심으로 책을 위로해 주지만, 결국 얼마 후 책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클라라가 비밀리에 빌려준 책이 아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책의 부모가 쏟아내는 비난, 이 모든 사실이 발각되어 겨우 따 놓은 대학 장학생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클라라는 확고히 믿었던 책의 영향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고 자신 역시 교장이나 책의 부모처럼 편견을 갖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책이라는 친근한 소재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다.

<저자 소개>

데이브 코니스(Dave Connis)는 사교댄스 강사부터 공사현장 일꾼까지 다양한 직업을 거쳐 현재는 지역민들이 여분의 시간과 재능, 돈을 투자하여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Code Corps’를 운영 중이다.

제목 : IN OTHER LANDS
가제 : 벽 너머 세상
저자 : Sarah Rees Brennan
출판사: Big Mouth House
발행일: 2017년 8월 15일
분량 : 432쪽
장르 : 모던 판타지



- * 휴고 & 로커스 상 최종 결승작 / 2018 세계 SF협회 상 최우수 YA 도서상 후보
- * “클래식한 학교생활 이야기와 성장 소설, 해리포터 패러디가 모두 담겨 있다.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이야기” - 뉴욕타임스 북 리뷰
- * “변화하는 대인관계, 전쟁의 위협, 인물들의 큰 성장과 더불어 작가의 날카로운 위트가 즐거움을 안겨준다. 성에 관한 고정관념, 유동적인 성적 특성, 어색한 로맨스에 관한 영리한 탐구가 깊이와 재미를 더한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친한 친구는 고사하고 싫어하지 않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짜증 유발자, 걸핏하면 비꼬고 아는 건 전부 다 이야기해야 속이 시원한 아이 엘리엇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온다.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보이는 벽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아는 세상과 분리된 마법 세상 ‘보더랜드’에서 살아보라는 제안을 받은 것이다. 엄마는 어릴 때 사라지고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는 어차피 엘리엇에게 관심이 없는 터라 주저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 인어 같은 상상 속 존재들이 있다는 그 벽 너머 세상을 보지 않고 과연 남은 평생 후회 없이 살 자신이 없었던 엘리엇은 덜컥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작가는 인간을 대표하여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영웅들에게 대다수가 기대하는 특징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인물인 엘리엇이 인간 세상에서 ‘상식’으로 여겨지거나 사회적 통념으로 뿌리내린 생각들이 전부 반대로 뒤바뀐 마법 세계에서 4년간 지내며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엘프, 난쟁이, 인어, 트롤이 모두 함께 사는 곳, 성 역할과 성적 지향성에 관한 암묵적인 기준도, 고정관념도 없는 곳, 오히려 ‘여자라면 이래야 해’라고 생각하는 특성을 ‘인간 남자라면 당연히 지녀야 할 특징’으로 생각하는 엘프들의 이야기가 큰 웃음을 자아내는 곳에서 우울하고 만사에 적대적이던 엘리엇은 훨씬 더 나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간다.

괴팍한 프랑스어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뱅에 오르고 포장도 안 된 길을 따라 한 시간 넘게 이동할 때만 해도 몇 시간 후에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엘리엇과 눈만 마주쳐도 경멸과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같은 학교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이 지리학적인 탐구인지 뭔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끌고 간 낯선 들판에 내린 엘리엇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다. 풀과 나무만 가득한 들판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 높이 솟은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는데, 그 앞에 일행을 기다린 듯한 사람이 보였다. 그런데 선생님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엘리엇은 생전 처음 보는 요상한 웃차림으로 서 있던 그 여자에게로 서둘러 달려가더니, 돈을 건네는 모습을 본 것이다. 설마

선생님이 납치범에게 우리를 팔아 넘기나? 이렇게 외딴 곳에 일부러 데려와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든 나머지 엘리엇은 다른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고향을 치지만 다들 또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얼굴로 무시한다. 하지만 선생님과 헤어진 그 낯선 여자에게도 그 외침이 들린 모양이었다. 엘리엇을 가만히 바라보던 여자는 “이 벽이 네 눈에는 보이니?”라는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진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연히 보인다고 대답하는 엘리엇에게, 여자는 말없이 벽 저 쪽을 가리킨다. 선생님과 차에서 함께 내린 학생들이 마치 투명 벽인 것처럼, 벽을 뚫고 지나가고 있었다! 놀란 엘리엇에게, 여자는 이 벽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이며, 벽이 보인다면 벽 너머에 있는 세상에 갈 자격이 있다고 설명하며 가보지 않겠냐고 이야기한다.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인 엘리엇은 마침내 신비한 존재들이 모여 사는 ‘보더랜드’에 첫 발을 디딘다. 혹시 몰라 필요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꼭 쥐고 있던 휴대전화는 보더랜드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직대며 불꽃이 마구 튀기 시작하고, 엘리엇은 인간이 만든 어떠한 최첨단 기술도 보더랜드에 들어올 수 없으며 사실 필요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된다. 그러나 벽 앞에서 처음 만난 여자, ‘캡틴 우드싱어’로 불리는 사람을 통해 보더랜드에서는 마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인간 세상과 보더랜드를 구분 짓는 마법의 벽을 지키는 전사가 되거나, 일종의 의원이 되어 정치, 외교 같은 일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쪽을 택하는 앞으로 4년 동안 철저한 교육이 실시된다는 사실도 전해진다. 호기심에 한 번 와봤을 뿐 군인이 되어 목숨 걸고 싸우는 것도 싫고 지겨운 정치 공부를 하는 건 더 싫은 엘리엇은 그냥 왔던 곳으로 되돌아 가야겠다고 마음 먹지만, 돌아선 순간 그 결심은 바로 사라진다. 태어나 지금까지, 13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나타난 것이다. 투명한 피부, 흰칠하고 강인하면서도 섬세한 몸매, 반짝이는 두 눈을 가진 매혹적인 엘프 전사 세린은 마법 세계의 규칙에 황당해하는 엘리엇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고 그냥 놀러 살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만든다. 결국 엘리엇은 보더랜드의 의원이 되기 위한 정규 과정을 배우기로 하고, 루크라는 새 친구도 사귈다. 수백 년 전, 벽 근처에 있던 마을에 살다가 인간들 중에서는 처음 보더랜드의 벽을 발견하고 이후 대대로 벽을 지키는 충실한 파수꾼 역할을 해온 선번 가문의 아들 루크는 매사에 비꼬고 놀리려고 드는 엘리엇을 학교 아이들처럼 짜증내거나 거슬린다고 여기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준다. 세린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다소 비뚤어진 목표로 보더랜드 생활을 시작한 엘리엇은 시간이 갈수록 세린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더불어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중시한다고 그 동안 그저 입으로만 떠벌려온 자신의 생각이 훌륭한 외교 전략으로 충분히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척 할 때만 활용해온 명석한 두뇌를 마침내 제대로 활용하여 공부에도 진지하게 몰두하기 시작한다. 화려한 마법보다는 엘리엇이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발전해가는 과정과 우정, 이상, 정체성을 찾고 진짜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을 마법이라는 흥미로운 소재와 접목시킨 독특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새라 리스 브레넌(Sarah Rees Brennan)은 아일랜드 출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다. 저서로는 『Tell the Wind and Fire』, 『Season of the Witch』 등이 있다.